

국외 기록관리 전문직 유형 및 역할 분석 연구

A Study on Analysis of Types and Roles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Professionals Abroad

김희정(Heejung Kim)*

목 차

- | | |
|------------------------------------|---------------------------|
| 1. 서론 | 3.1 업무영역과 직군간의 관계 분석 |
| 2. 기록관리 전문직의 유형 및 특성 | 3.2 배경 전문지식과 직군간의 관계 분석 |
| 2.1 기록관리 전문직의 범주 및 유형 | 4. 기록관리 전문직의 유형 및 역할 분석 |
| 2.2 기록관리 전문직과 유사직간의 업무적 상관성 및 특성 | 4.1 기록관을 중심으로 한 역할 |
| 2.3 기록관리 전문직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직무유형 및 특성 | 4.2 기록관과 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역할 |
| 3. 기록관리 전문직의 유형 및 역할을 중심으로 한 내용 분석 | 5. 결론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전문직의 다양한 유형 및 역할 범주에 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하였다. 국외 주요 관련기관 및 전문직에 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항목들에 관한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행 결과, 기록관리 전문직 유형은 기록물, 이용자,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업무영역들이 특화되어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는 다시 기록관을 중심으로 한 대내적인 역할 영역과 기록관과 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대외적인 역할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기록관리 전문직의 역할영역에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직무 역할 이외의 지식관리, 디지털자산관리 등의 다각적인 기능 확장 및 기록관과 상호작용을 하는 다양한 기관·조직과 원활한 파트너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능력도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기록관리 전문직, 역할분석, 아키비스트, 기록관리자, 큐레이터

<ABSTRACT>

In this study, various types and roles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professionals are reviewed. Throughout the literature review, types and roles of the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professionals a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roles of professionals can be divided into the areas of records, users and management. In addition to focusing on records and archives, modern archival professionals must also be adept in such areas as knowledge management and digital asset management. Business and management skills for forging partnership with related organizations are also needed.

Keywords: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als, Archivists, Roles Analysis, Records Manager, Curators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heejung@yonsei.ac.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5월 29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6월 7일

1. 서론

2007년 4월 5일을 기하여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 기록물관리법의 마련, 지속적인 기록관리 학과의 신설¹⁾ 등 기록관리 관련 제반 상황이 이제 한 단계 더 활발하게 성장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법안과 교육에 있어서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기록관리 전문직의 유형과 역할 범주에 대한 이해는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기록관리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찍이 근대기록관의 설치와 함께 기록전문가의 배치와 양성도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기록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단체들²⁾도 자연스럽게 자리매김을 해왔으며, 기록관리 전문직의 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기록관리 전문가단체에서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각종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관련 자료집 발간 등과 함께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취업 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하나의 기록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실제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업무 영역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기록관리 전문직의 역할이

요청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록관리 전문직과 관련하여 '기록연구사'의 명칭과 자격요건³⁾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을 뿐, 기록관 운영 및 기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파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전문직의 다양한 유형과 역할 범주를 확인해 봄으로써, 시야와 이해의 범위를 넓히고 향후 국내의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기록관리 전문직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서 기록관리 전문직과 관련하여 수행된 해외 논문들과 기록관리 대표 기관 웹사이트들을 참조하여 직무유형 및 범주 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주요항목들을 선정하여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용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전문직의 유형 및 역할 영역을 분석하였다.

2. 기록관리 전문직의 유형 및 특성

2.1 기록관리 전문직의 범주 및 유형

미국 국가기록관(The U. S. 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에서는 기

1) 최근에는 2006년도에 중앙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중부대학교에 기록관리학 과정이 추가적으로 신설되었다.
2) 기록관리 전문가단체로는 미국의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http://www.archivists.org>), The Academy of Certified Archivists(<http://www.certifiedarchivists.org/>)와 캐나다의 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ACA) (<http://archivists.ca>) 등이 있으며, 십여개의 지역별 기록전문가단체(아키비스트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국제기구로서는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http://www.ica.org/en/about>)와 ARMA(<http://www.arma.org/>) 등이 대표적이다.
3) 기록관리법 개정안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언급된 '기록연구사'는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거나,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물 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 그 자격이 부여된다.

록관리 전문직의 유형 및 그에 대한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아키비스트(archivists): 아키비스트⁴⁾들은 기록의 진본성과 맥락을 유지 보호하면서, 기록의 평가, 수집, 정리기술, 보존, 제공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종이문서, 사진, 지도, 필름 및 컴퓨터 레코드 등 다양한 유형을 취급하며, 기록물의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안목, 기록물의 처리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2) 기록관전문가(archives specialists): 기록관전문가는 자신이 봉사하는 특정주제에 대하여 전문화된 지식들을 중심으로 아키비스트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기록물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이나 보존(preservation)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담당하며, 자신의 전문주제와 관련된 이용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3) 기록관테크니션(archives technicians⁵⁾): 아키비스트와 보존전문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보존고에 분류된 문서들을 배치하는 역

할을 하거나 오래되고 손상되기 쉬운 유물들을 깨끗하게 하고 보존(conservation)하는 업무를 보조한다.

(4) 보존전문가(conservators⁶⁾): 손상되거나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기록물들을 대상으로 보존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화학약품, 도구 등을 활용한다. 기록물의 물리적인 복구를 담당하며, 취급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는 기록물이라든지, 훼손이 심한 기록물이 이관되었을 경우에는 아키비스트가 정리 평가하기 이전에 일차적으로 접수하여 물리적 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보존전문가는 아키비스트와 협력하여 함께 기록관의 보존정책을 수립하기도 한다.

(5) 기록관리자(records managers): 정부부처나 관공서, 그 외 업무가 수행되는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종이문서와 전자파일들을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아키비스트 및 보존전문가와와의 협조 하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중요한 문서들을 기록관에 안전하게 이관하는 역할을 한다.⁷⁾

4) 미국에서의 아키비스트는 비활용(비현용)기록물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유럽과 호주에서는 미국에서의 기록관리자(records manager)가 담당하는 활용(현용) 기록관리 업무를 아키비스트의 업무영역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5) 테크니션(또는 기술자)의 명칭은 전문직을 조력하는 경우에 흔히 사용된다(예: research technicians, library technicians, nurse technicians, laboratory technicians 등). 박물관 테크니션은 큐레이터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6) 보존의 개념에 있어서 conservation의 경우에는 주로 화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이미 훼손된 기록물들을 복구하는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preservation과 구별된다.

7) 미국 국가기록관에서는 상기의 핵심 기록전문직들 외에도 교육자, 큐레이터, 편집자, 사서, 그래픽 디자이너, 화학자 등의 전문직들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전자기록물의 급증과 더불어 동적매체 보존 전문가(dynamic media preservation specialists), 디지털 이미지 전문가(digital imaging specialists), 광매체 도구 복구전문가(optical instrument repairers) 등의 새로운 직군 유형들이 출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2 기록관리 전문직과 유사직간의 업무적 상관성 및 특성

(1) 미국 노동청(U. S. Department of Labor)에서는 기록관리 전문직간의 직무적 상관성과 관련하여 아키비스트, 큐레이터(curators) 그리고 보존전문가(conservators)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키비스트, 큐레이터⁸⁾, 보존전문가는 모두 유사한 기관에서 근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대상물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기관(박물관, 기록관, 미술관 등), 또는 상호 협조 및 연관성을 갖는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근무한다. 자격요건에 있어서는 대부분 대학원 이상의 자격요건이나 현장경력을 요구하며, 업무내용에 있어서는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대상물을 수집하여 장기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주 업무라는 측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특히, 아키비스트와 큐레이터는 대중의 이용을 위하여 컬렉션을 정리, 기술, 목록, 전시를 계획하고, 교육프로그램 및 안내 투어, 워크샵, 강연, 강좌 등을 개최하는 공공확장프로그램(public outreach programs)을 구상한다. 또한, 연구자들의 연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아키비스트는 대상 기록물들을 대부분 기록관리자들로부터 이관받는 데에 비하여, 큐레이터들은 기증을 통하여 수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구입, 경매, 교환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큐레이터는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수목원 등을 관장하며, 최근에는 각종 공모 프로모션, 전시회 등을 통한 자금유입의 의무도 요청되고 있다. 대규모의 박물관에서는 컬렉션의 주제 분야에 따라서 해당 주제 분야 전문가를 고용하며, 컬렉션의 관리, 연구업무 담당, 행정업무 담당 등 세부 업무 영역별 큐레이터를 고용하기도 한다.

(2) SAA(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에서는 아키비스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주변 직종들을 비교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기록관리자와 아키비스트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기록관리자들이 관리하는 방대한 기관 기록물들의 대부분은 소멸되는 성격의 기록물들이다. 반면에 아키비스트는 그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양의 기록물들을 관리하지만 장기간 보존을 위한 가치를 갖는 기록물들을 대상으로 한다.

박물관 큐레이터와 아키비스트는 서로 연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박물관 큐레이터들은 대체로 3차원적인 객체, 즉 조각, 미술품 등의 작품들을 수집, 연구, 정리하는 데에 비하여 아키비스트는 종이, 필름, 전자기록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역사가와 아키비스트들은 장기간 상호 연관성을 가져왔다. 아키비스트는 기록물들을 식별, 보존, 유용화할 수 있도록 일하는데 비하여, 역

8) 미국에서는 아키비스트가 역사기록을 다루는 일에 종사할 경우 매뉴스크립트 큐레이터(manuscript curator)라고도 명명한다.

사기들은 기록물들을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다.

아키비스트들은 기록물의 콘텐츠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보존전문가들은 기록물의 물리적 복구에 초점을 맞춘다.

(3) UK Society of Archivists에서는 기록관리 전문직들이 구비해야 할 능력과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자신감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법 - 기록관리 전문직에는 기록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외에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기록관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 대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 등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청된다.
- 2) 협상 능력 - 기록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기록관 내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력 있는 협상 능력이 필요하며, 대외적으로는 레코드 센터나 그 외 장기보존이 필요한 기록물들의 이관을 허용받기 위한 설득과 협상능력이 요청된다.
- 3) 분석적 사고력 - 기록관리 전문직들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 개별단위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 외에도 전체 과정의 유기성을 중심으로 한 분석적 사고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조직의 업무 처리 및 통합시스템에 대한 파악 능력이 필요하다.
- 4) 유연성 - 기록물의 이관 및 처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대내외 조직과 기관과의 관계가 파생하며 이 가운데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판단 능력과 유연성 역시 기록관리 전문직들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능력 중의 하나이다.

- 5) 새로운 정보기술에의 적응력 - 전통적인 텍스트기반 형태의 기록물 외에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한 기록물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정보기술의 발전속도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정보기술 능력을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2.3 기록관리 전문직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직무유형 및 특성

기록관리 전문직과 관련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전에는 주로 기록관리 대상인 기록물들의 분류, 평가,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직의 역할을 제시해왔다면,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영역 중심으로 확장된 기록관리 전문직의 다양한 역할기능에 대한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록관리 전문직과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x(1992)는 아키비스트라는 직종이 20세기 초반 역사가 커뮤니티로부터 발전되어 온 만큼 역사적인 지식, 방법론, 연구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연관성을 가져왔으나,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한 관심이 되어가는 만큼 정보전문가로서의 거듭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

다. 특히 정보기술 패러다임 하에서는 역사적-인문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동안의 기록문화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하며, 정보기술 표준에 있어서도 단지 주시하는 입장이 아니라 증거적 가치와 정보의 식별, 보존과 관련된 표준의 창출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보기술 표준과 관련하여 아키비스트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Cox(1995)는 기록관리 전문직의 사명은 기관을 대표해서 기록관 기록물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적절히 보존한 후,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나아가서는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키비스트들은 여전히 이전 세대의 익숙한 업무 영역과 문화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역동적인 대처능력과 유연한 적응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Yakel(2000)은 기록관리 전문직들은 오늘날 활발히 논의되는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 지적자산(intellectual capital), 디지털 자산관리(digital asset management) 등의 개념과의 연결고리가 약한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 상황은, 중요한 기록물들이 레코드센터나 기록관(archives) 내에 집중적으로 소장되기보다는 전자기록물 형태로 확산되어가는 비중이 더욱 증가할 앞으로의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에, 기록관리 전문직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될 수 있는 원인을 경고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가 오랫동안 지식관리자(knowledge managers)의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이제는 물리적 기록

물들과 레코드센터, 기록관과 같은 단일 영역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전통적인 정체성으로부터 탈피해야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보탐색자들에게 있어서 기록물센터나 기록관이 이제는 더 이상 첫 번째 선택대상이 아닌 만큼, 기록물을 지식의 원천이라는 관점으로 재인식하고, 정보생태학(information ecology)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가 단순히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되며, 기록물들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용되는가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록물을 관리만 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그러한 기록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하며,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 원천들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기록물의 분석을 통하여 조직 차원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기록관리 전문직들 스스로가 보다 전략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Duranti(2000)는 아키비스트들의 역할이, 이전에는 기록관, 이용자들, 관리자, 연구자 등을 위한 업무의 개념으로 대표되었다면, 지금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역할들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지만, 이 외에도 새롭게도 중요한 관점들이 요구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개인적인 아키비스트로서의 역할 이외의 기록전문직(archival profession)이라는 총체적인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양자간의 균형을 잘 유지했을 때에 더욱 발전적인 기록관리 전문직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개인적인 아키비스트

로서의 역할이란 전통적인 아키비스트 업무영역에 기반한 기록물 중심의 업무수행을 의미하고, 총체적인 기록전문직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역할 수행이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업무수행으로서, 기록관리 영역과 연관된 다양한 기관 및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즉, 기록관리 전문직과 연관된 직종들로서 사서, 컴퓨터과학자, 정보기술전문가, 지식공학자, 변호사, 역사가, 보존전문가, 경영전문가 등의 직종들을 들 수 있는데, 이 전문직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쌓아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은 장기적으로는 유관 정부기관, 업계 등과의 유대를 통하여 기록관리 영역의 확장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Hickerson(2001)은 기록관리 전문직들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고 기술하였는데, 이 도전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전자문서의 관리, 비텍스트 자원への 투자 필요성, 기록물의 글로벌한 특성의 인식, 기술(description)과 접근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 고안의 필요성, 접근점과 컬렉션 개발 우선순위의 확대, 정보관리에 대하여 기록관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다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 미국 아키비스트 학회의 강화, 기록관리 기업들의 자원의 확대,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직 역할의 유지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전자형태의 문서들을 식별화 하고, 평가 보존하며, 이와 관련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텍스트가 아닌 소장기록물에 자원을 집중하도록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즉, 텍스트는 감소하고 이미지 사운드 및 동영상 형태의 기록물들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의 관

리를 위한 자원과 예산의 집중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기록물들이 글로벌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보관리가 글로벌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록물 역시 글로벌한 속성을 가지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식의 공유와 협력에 노력할 때에 기록관리 전문직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

넷째로는, 다양한 포맷으로 표현되는 현용 기록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description) 방법의 고안이 필요하다. 이제는 더 이상 아키비스트들이 전통적인 기술 방법론만으로는 현존하는 다양한 기록물에 대한 지적 접근과 통제를 제공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이 필요하다.

다섯째로, 접근점과 컬렉션 개발의 우선순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그동안 초점을 맞추어온 일차적이고도 핵심적인 이용자들의 범주를 좀 더 확대하여 잠재적이고 이차적인 이용자 집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화된 정보서비스와 컬렉션에 대한 온라인 홍보도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로는, 정보관리에 대하여 기록관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다 기본적이고도 응용적인 연구영역의 개척이 필요하다. 급변한 환경에서 새로운 업무영역을 담당해야 할 아키비스트들은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 참조를 할 연구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을 중심으로 한 기록물, 정보, 지식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이와 관련된 국가적인 이슈, 보안문제, 프라이버시, 진본성, 분산 네트워크 및 디지털라이브러리, 네트워크 이용자 서비스, 디지털 아카이빙 등의 주제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슈들이 기록관리학적 관점에서 연구 수행되었을 때에 비로소 가장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기록관리 전문직의 업무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제 영역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기록관리 영역 바깥에서 대부분이 수행되어 왔다. 궁극적으로는 기록관리 영역에서 제기되는 정보관리 관련 질문에 대한 가이드는 기록관리 관점에서 연구되었을 때에 가장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일곱째로는, 미국 아키비스트 학회의 강화이다. 미국 아키비스트 학회(SAA)가 보다 더 강력해질 때에 기록관리 전문직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SAA는 1936년 설립된 이후 1940년도에는 250명의 회원들을 유지하였으며, 2001년 현재에는 3천명이 훨씬 넘는 회원들을 유지하고 있다⁹⁾. 또한 회원들의 영역도 매우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에는 학술지와 전문적인 표준, 교육지침, 법규의 고안, 주요 기본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도 역동적인 조직의 성장은 기록관리 전문직의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여덟째로는 기록관리 기업들의 자원의 확대로서, 이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기록관리 영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기록관리 영역과 관련된 유관 기관들과 기업들의 자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관점에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직 역할의

유지가 필요하다. 즉, 기록관리 전문직 종사자들은 기록관을 이용하는 개별 개인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대중들에 대하여서도 옴부즈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Davies와 Ellis(2003)는 1993년부터 2001년간 영국에서의 기록관리 영역 전문직의 고용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9년간 전체적인 고용 인원수는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고용이 증가한 곳은 박물관, 대학, 사기업 부문, 정부관공서 부문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록관리 전문직과 관련하여, 박물관이나 대학기록관을 중심으로 한 아키비스트의 양적증가에 이어 일반 사기업이나 정부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자(records managers) (또는 기록정보관리전문가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professionals)의 영역도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아키비스트나 기록관리자의 고유 업무 영역과 함께, 정보기술 측면 및 법적인 측면에 대한 전문성 요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emberton과 Williamson(2005)는 2002년 테네시대학에서 정보전문직의 성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92명의 기록관리자들과 155명의 아키비스트들, 그리고 1352명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메일링 리스트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수행하면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성향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용성, 설득력, 외향성, 팀워크 등 주로 전문직 성향을 중심으로 한 13개의 범주를 설정하고, 101개의 질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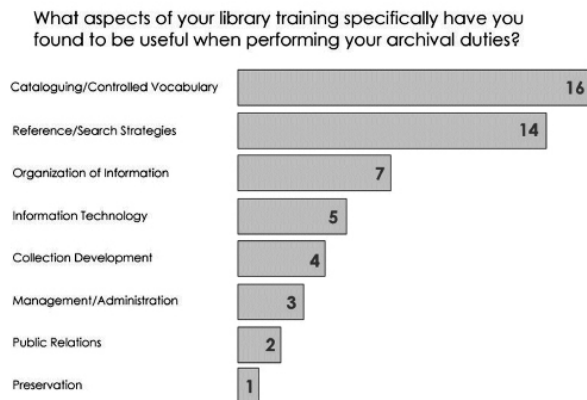
9) 미국 도서관협회(ALA)는 이보다 10배가 더 큰 규모이며,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는 SAA보다 4배가 큰 규모이다. Organization of American Historians는 SAA 대비 세배 정도가 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행하였는데, 응답을 분석한 결과 기록관리자와 아키비스트들을 중심으로 한 기록전문직들은 특수도서관 사서들보다는 고객서비스 지향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나, 목록담당 사서보다는 훨씬 더 고객 지향적이고, 더 외향적이었다. 또한 더 개방적이었으며, 팀워크 역시 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기능적인 부분은 저조하였다.

Cook(2005)의 연구는 실제로 미국 현장에서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다가 같은 도서관에 소속된 기록관으로 근무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서, 저자 역시 대학도서관에 사서로 근무하다가 대학기록관에서 아키비스트로서 근무 이전해야 했던 경험과 관련하여 수행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서와 아키비스트간의 전문직으로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두 직종이 상호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도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즉,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였을 때에 받은 훈련 과정이 기록관리 업무에는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아키비스트로서 근무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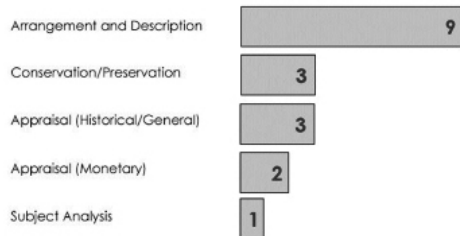
때 받은 훈련이 도서관 사서로 근무할 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설문은 리스트서브를 통하여 사서들과 아키비스트들에게 배포하였으며, 47명의 응답을 회신받아 분석한 결과, 도서관 업무 트레이닝 중 목록과 어휘통제 업무, 그리고 정보조사제공 및 탐색전략이 가장 유용했으며, 기록관에서 받은 훈련은 정리와 기술 업무가 도서관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가장 큰 도움을 받았음을 나타냈다. 이에 관한 내용은 <그림 1>과 <그림 2>에서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은 기록관보다 더 서비스 지향적이며, 기록관은 상대적으로 더 문헌(document) 지향적이므로, 아키비스트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서비스 지향적인 방법론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서로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때에는 문헌의 장기간 보존에 염두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보기술의 변화와 기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기록관이 적극적으로 공동협력할 필요가 있음도 시사하고 있다.



<그림 1> 도서관 직무 훈련 중 기록관 근무수행에 유익했던 영역(Cook 2005)

What aspects of your archives training specifically have you found to be useful when performing your library duties?



<그림 2> 기록관 직무 훈련 중 도서관 근무수행에 유익했던 영역(Cook 2005)

Dearstyne(2005)은 향후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조직은 보다 지식관리적인 관점에서 기록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관리 전문직도 보다 조직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기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정보전문직으로서의 기록관리 전문직의 역할을 이해하고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하여 대표적으로 요구되는 역할로서 7개의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이 정보를 낭비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정보기술과 정보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정보관리에 있어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보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넷째, 조직 내 CIO가 보다 더 정보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서 발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다섯째, 혁신적인 정보산업계의 중재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차세대 정보전문가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현안과 이슈가 되는 최신 정보문제를 제시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의 해결과 향후 비전을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Gingrich and Morris(2006)는 기록관리전문직이 조직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기술(IT) 관리자들과 가까운 유대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시스템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3. 기록관리 전문직의 유형 및 역할을 중심으로 한 내용 분석

이상으로 기록관리 전문직과 관련된 대표기관에서 정의한 내용들과 선행연구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을 중심으로 수행된 결과이니만큼 각각 초점과 관점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종합적인 기록관리 전문직의 유형 및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요 항목들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업무영역과 직군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분석과 직군과 직군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분석, 직군 및 유관기관·배경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3.1 업무영역과 직군간의 관계 분석

업무영역과 직군간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서 상호관련성을 파악하였다. 기록관리 전문직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함을 고려할 때에 다양한 업무영역들이 연관되어서 정리할 수 있다.

업무영역과 직군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앞 단원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록관리 전문직군들 중 아키비스트(A), 기록관리자(E), 기록정보관리자(F), 큐레이터(G) 등은 기록물 영역에 대한 역할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및 기관운영에 있어서의 역할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 수행 비중이 큰 직군은 기록관전문가(B) 및 큐레이터(G) 직군이였다. 또한, 큐레이터 직군은 기관운영과 관련된 업무 수행도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담당하는 업무영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배경 전문지식과 직군간의 관계 분석

기록관리 전문직 범주에는 다양한 업무 영역을 담당하는 직군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직군들은 상호 협력 및 보조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기록관리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서로 다른 영역의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배경이 되는 전문지

<표 1> 기록관리 전문직 업무영역과 직군간의 관계(◎ 전담영역 ◦ 부분담당, 보조 영역)¹⁰⁾

		A	B	C	D	E	F	G	H
기록물	평가	◎	◦		◦	◎	◎	◎	
	생산/수집	◎		◦		◎	◎	◎	◦
	정리/기술	◎	◦	◦		◎	◎	◎	◦
	보존(conservation)	◦	◦	◦	◎	◦		◎	◦
이용자	디지털보존	◦	◦			◦	◎		
	이용자정보제공	◦	◎			◦	◦	◎	
기관운영	이용자교육	◦	◎				◦	◎	
	아키비스트 교육	◦							
	행정	◦		◦		◦		◦	◦
	예산							◦	
	기획	◦		◦			◦	◦	◦
	정책결정	◦				◦	◦	◦	
	대외기관 협력	◦				◦	◎	◎	
	전시	◦		◦				◎	◦
대의 홍보	◦		◦				◦	◎	

A-아키비스트 B-기록관전문가(archives specialists) C-기록관테크니션(archives technicians)
 D-보존전문가(conservators) E-기록관리자(records manager) F-기록정보관리자(RIM)
 G-큐레이터(curators) H-박물관테크니션(curators technicians)

10) 이 분석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및 사례에 국한하여 분석한 것이므로, 추후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영역의 창출, 전문직 영역의 변화 및 확대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국외의 사례에 국한한 분석이므로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고민과 분석이 필요하다.

식 영역도 다양하게 구성되는데, 이와 같은 배경 전문지식과 직군간의 관계를 <표 2>에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표 2>의 분석 중 기록관전문가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아키비스트의 전공영역의 가능성과 함께 별도의 주제분야가 있게 되는데, 별도의 주제분야는 다양하게 선정될 수 있으므로 본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기록물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개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프라이버시 관련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활동하고 있는 아키비스트의 배경영역에 법학과 관련된 전공영역이 존재한다는 언급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기록관 운영과 관련해서 경영학 및 커뮤니케이션학의 배경지식도 요구되지만,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충족되지 않고 있다.

4. 기록관리 전문직의 유형 및 역할 분석

2장에서는 기록관리 전문직의 유형과 역할에 관련되어서 수행된 연구들을 정리하였고, 이어 3장에서는 연구자의 관심과 주제에 개별적이고도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온 전문직 연구들의 결과를 표로 분석 정리하였다.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된 분석 정리 내용에 기반하여 기록관리 전문직의 유형 및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기록관을 중심으로 한 역할과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역할로 구분된다.

4.1 기록관을 중심으로 한 역할

기록관을 중심으로 한 역할 분석을 <그림 3>에서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기록물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업무 영역과 관련 전문직 유형을 제시한다. 상대적으로 기관 내부적인 영

<표 2> 기록관리 전문직 범주 내의 배경 전문지식과 직군간의 관계¹¹⁾

전공영역	A	B	C	D	E	F	G	H
사학	○	○	○		○	○		
문헌정보학	○	○	○		○	○		
박물관학(Museology)							○	○
행정학	○	○	○		○	○	○	○
화학	○	○	○	○	○	○		
컴퓨터과학	○		○		○	○		
경영학						○	○	○

A-아키비스트 B-기록관전문가(archives specialists) C-기록관테크니션(archives technicians)
 D-보존전문가(conservators) E-기록관리자(records manager) F-기록정보관리자(RIM)
 G-큐레이터(curators) H-박물관테크니션(curators technicians)

11) 이 분석 역시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및 사례에 국한하여 분석한 것이므로, 추후 환경변화에 따른 학문영역의 확장 및 전문직 영역의 성장에 따른 추가적인 재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국내의 환경과 국외의 환경이 다르므로, 아직 성장기에 있는 국내여건을 감안할 때 이 분석은 다만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역, 특히 기록물의 생애주기 중심의 업무영역과 관련된 범주이며, 전통적인 아키비스트가 수행해 온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된다.

본 모형은 기록관을 중심으로 한 업무 영역 모형인 만큼 큐레이터와 박물관테크니션의 직종은 생략하였다. 그림에서 나타난 실선은 전담영역을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며, 점선은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4.2 기록관과 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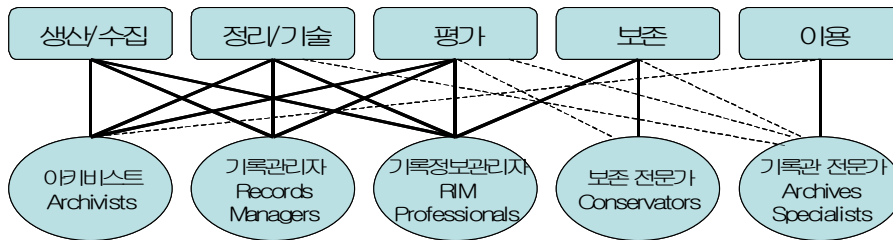
기록관과 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역할 분석에 대해서는 기록관과 연관성을 갖는 유관기

관들간의 네트워크를 모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각 기관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직들은 기록관 내의 아키비스트와 상호작용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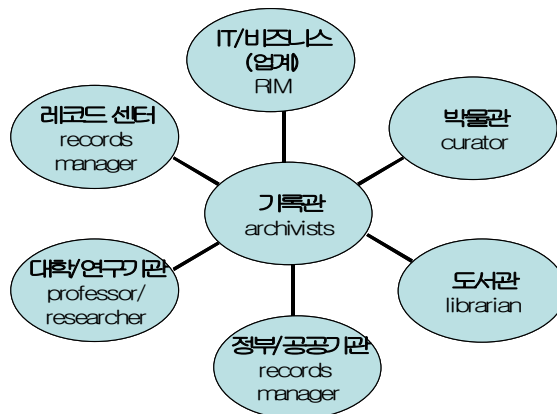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전문직과 관련된 대표기관들과 전문직 관련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관리 전문직의 유형 및 역할 분석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기록관리 전문직에 관하여서는 상당히 다양



<그림 3> 기록관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 전문직의 유형 및 업무유형



<그림 4> 기록관과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 전문직의 유형

한 측면에서의 기능과 관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직무 역할만 인식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하여 기록관리 전문직의 범주가 상당히 광범위하며, 특히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영역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Yakel(2000)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생태학(information ecology)적인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사회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의 기록관리 전문직 영역은 변화의 흐름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기존의 영역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Cox 2000).

향후에는 기록관리 전문직의 업무영역을 기존 기록물의 관리영역의 범주 외에도 지식관리, 디지털 자산관리 등의 다각적인 영역으로 그 기능을 확장하고, 아울러 기록관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의 원활한 파트너십을 수행하는 경영능력의 구비가 요청된다.

기록관리 영역은 인류의 문화와 지식의 확대와 병행하여 함께 진화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기록관리 전문직 종사자들의 업무 영역도 활발한 변화와 자기 개혁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그러나 기록관리 전문직 종사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직과 기관 내 정책결정자의 마인드와 인식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인식에 기반한 적극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여건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Cook, H. 2005. "Librarians and Archivists: Archivists and Librarians: What's the Connection?" *Felicitier*, 2:69-71.

Cox, R. J. 1992. "The American Archival Profess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3: 571-75.

Cox, R. J. 1995. "Archives and Archivis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What Will We Become?" *Archival Issues*, 20(2): 97-113.

Cox, R. J. 2000. "Searching for Authority: Archivists and Electronic Records in the New World at the Fin-de-Siecle." *First Monday*, 5(1).

Cox, R. J. 2006. "7 Paths to Developing or Sustaining RIM Programs." *The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March/April: 48-57.

Davies, S. J. and Ellis, M. 2003. "Employment Trends in the Archive Domain, 1993-

- 2001.”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4(1): 15-24.
- Dearstyne, B. W. 2005. “The Information Enterprise: New Challenges New Dimensions.” *The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July/August: 39-45.
- Duranti, L. 2000. “Meeting the Challenge of Contemporary Records: Does It Require a Role Change for the Archivist?” *The American Archivist*, 63 Spring/Summer: 7-14.
- Gingrich, L. L. and Morris, B. D. 2006. “Retention and Disposition of Structured Data: The Next Frontier for Records Managers.” *The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March/April: 30-39.
- Hickerson, H. T. 2001. “Ten Challenges for the Archival Profession.” *The American Archivist*, 64 Spring/Summer: 6-16.
- Pemberton, A. E. et al. 2005. “RIM Professionals: A Distinct Personality?” *The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September/October: 54-60.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http://www.archivists.org/>>
- UK Society of Archivists.
<<http://www.archives.org.uk/>>
- U. S. Department of Labor.
<<http://www.bls.gov/oco/ocos065.htm>>
- U. S. 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
<<http://www.archives.gov/index.html>>
- Yakel, E. 2000. “Knowledge Management: The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Perspective.” *The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Jul.

